

■ 주요 뉴스: 미국 1분기 GDP 성장률(+2.0%), AI 투자 등으로 전분기(+0.5%) 대비 개선

- ECB·BOE, 정책금리 동결. 라가르드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일축
- 일본 외환당국, 고강도 구두개입 단행. 엔화는 큰 폭 강세(160엔→156엔)
- 대만 GDP 성장률, 1분기 +13.7% 성장(수출 +35.3% 등)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

■ 국제금융시장: 기업실적 호조,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 개선

미국 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약세[-0.9%], 금리 하락[-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박테크(알파벳) 실적 호조에 힘입어 첫 7,200pt 상회
유로 Stoxx600은 유럽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1.4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, 일본 외환당국의 고강도 정책대응에 따른 엔화 강세로 하락
엔화는 미 달러화 대비 2.4% 강세, 유로화는 0.5% 강세
- 금리: 미국 10년물은 PCE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에 연동해 하락
독일 10년물은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7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72.7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0.62% 하락). 한국 CDS 1bp 상승

		4.30일	4.29일	전일대비			4.30일	4.2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209.0	7,136.0	+1.02%	국제 금리 10y	미국	4.37%	4.43%	-6bp
	유럽	611.28	602.96	+1.38%		독일	3.04%	3.11%	-7bp
	중국	4,112.2	4,107.5	+0.11%		영국	5.01%	5.07%	-6bp
	일본	59,285	59,917	-1.06%	CDS 5y	한국	29bp	28bp	+1bp
	한국	6,598.9	6,690.9	-1.38%		중국	44bp	43bp	+1bp
환율	달러지수	98.06	98.96	-0.91%	위험 지표	EMBI+	262	257	+5bp
	유로화	1.1731	1.1677	+0.46%		VIX	16.89	18.81	-10.21%
	엔화	156.59	160.41	+2.44%	원자재	WTI유	105.07	106.88	-1.69%
	위안화	6.8281	6.8404	+0.18%		구리	592.6	587.9	+0.81%
	원화	1,483.3	1,479.0	-0.29%		금	4,617.9	4,548.0	+1.5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, AI 투자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

-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은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+2.0%(연율) 성장했다고 발표. '25.4분기에 비해 정부지출(-0.99%p → +0.73%p), 수출(-0.35%p → +1.32%p), 민간투자(+0.40%p → +1.48%p)가 크게 개선되면서 성장세 가속화에 기여. 한편, 애틀랜타 연은의 GDPNow는 2분기 성장률 최초 추정치를 3.7%로 제시
- Fitch Ratings는 AI(민간투자)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여전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. 단, UBS는 향후 6개월 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의 증가세가 상쇄될 수 있다고 경고
- 근원 PCE_{개인소비지출} 물가지수 상승률은 2월 +3.0%에서 3월 +3.2%로 상승. 한편, 에너지 상품·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경우 -0.2%에서 +14.4%로 급등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금리 동결, 라가르드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일축

- 정책위원회는 주요 정책금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(MRO 2.15%, deposit facility 2.00% 등). 중동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과 성장 하방 위험이 더욱 심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, 향후 데이터 의존적으로 회의별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이라는 기존의 신중한 정책 입장을 유지
-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, '스태그플레이션' 개념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매우 높게 이어졌던 '70년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, 현재 유로존 경제는 정체(또는 침체) 상태가 아니고 정책 대응 체계도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
- Eurostat이 발표한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은 +0.1%_{qoq}로 둔화(4Q +0.2%),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+3.0%_{yoy}로 상승, 3월 실업률은 6.2%로 하락(2월 6.3%)

■ 일본 외환당국, 고강도 구두개입 단행. 엔화는 큰 폭 강세

- 가타야마 재무상, “그동안 언급해온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”고 언급. 미무라 재무관, “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대피 경고”라고 발언. 엔화 환율은 29일 22시경(한국시간) 달러당 160엔을 상회해 최고 160.72엔까지 상승했던 상황
- 구두개입 직후 엔화 환율은 최저 155.57엔까지 급락(최대 3.3% 강세). Reuters는 익명의 정부 및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다고 보도

■ 영란은행(BoE), 정책금리 동결

- 통화정책위원회(MPC)는 정책금리(bank rate)를 3.75%로 유지하기로 결정(8명 찬성, 1명 +0.25%p). 향후 에너지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직접적(에너지 가격) 영향보다 간접적(임금 및 물가) 영향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임을 예고

■ 일본 산업생산, 중동發 공급 충격에 의한 감소세 지속

-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3월 광공업_{산업} 생산 지수는 예상(+1.1%^{Bloomberg})과 달리 전월(-2.0%)에 이어 추가 하락(-0.5%). 폴리에틸렌(-29.8%), 합성고무(-13.8%) 등 나프타 공급 차질과 관련한 유기화학제품 생산량 감소(-8.6%) 등이 주된 배경
- Teikoku Databank(일본 민간 씽크탱크)는 최근 일본 내 식료품 포장재 가격 급등세에 주목하면서, 올 여름부터 나프타 공급 부족에 의한 식품 가격 급등 가능성을 제시

■ 중국 제조업 경기, 대내 생산활동 부진 조짐

- 국가통계국(NBS) 제조업 PMI는 3월 50.4에서 4월 50.3로 소폭 하락했으며 신규 주문(51.6 → 50.6)과 수주 잔고(47.1 → 46.2)가 하락을 견인. 한편, 원자재 재고(49.3), 공급업체 배송시간(49.5)은 50을 밑돌고 원자재 매입 가격(63.7)은 높은 수준을 지속
- ING는 중국의 대외 무역 활동이 수출입 양 측면에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, 중국 내 제조업 경기의 상대적 부진과 인플레이션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

■ 대만 GDP 성장률, 사상 최고치 경신

- 행정원 주계총서(DGBAS)가 발표한 `26.1분기 GDP 성장률은 +13.69%<sub>yoy</sub>로 `25년 4분기(+12.65%)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. 견조한 AI 수요에 힘입어 상품·서비스 수출이 35.25% 성장하면서 성장을 견인(순수출 +9.62%p, 민간소비 +2.23%p 기여)

■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·태평양 채권 선호 지속

- Reuters는 LSEG와 Dealogic이 집계한 수치를 인용해, 금년 중 홍콩과 호주에서 발행된 자국 통화 채권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다변화 수요에 힘입어 아·태 지역 채권 발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
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 4월 ISM 제조업 PMI(52.7_{3월} → 53.2_{전망}), S&P Global 4월 미국(54.0_{3월} → 54.0_{전망}) · 영국(53.6_{3월} → 53.3_{전망}) 제조업 PMI, 일본 4월 도쿄 CPI(+1.4%_{3월} → +1.7%_{전망}) 등 발표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